

먼 땅 요르단에서 인사드립니다.

요르단에서 들리는 한국의 많은 어려운 소식에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장기간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길 기도합니다.

## 가정 소식

요르단은 생각보다 예전같이 코로나 확진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고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사업이 주 수입으로 삼고 있는 요르단은 예전과 같은 재정 회복이 당장은 어렵고 가계 대출 빚도 늘어나 전기세나 빚을 갚지 못해 구급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또한 이곳 요르단에서 상황과 보안 문제로 전문 선교사로 이곳에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얼마 전 재정을 위한 긴급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격정과 기도와 후원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 가정의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정부가 체육 시설 등 공공 모임 제재 등을 대폭 조정함으로 다시 재원 형제가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저희 가정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동역자분들이 함께 하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먼 땅에서 저희 가정이 홀로 있지 않음에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사역 소식

현지 태권도 도장이 오랜만에 문을 다시 열고 재원 형제가 다시 수업을 맞아서 하게 되었다고 체육관 커뮤니티에 광고가 나가고 활발히 예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서히 예전으로 회복되어가는 시간을 보내는 있지만 여전히 긴장감을 가지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지역 센터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외부 지원이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활발한 모임을 이어간 가정 교회 모임들이 지역 센터와 연계해서 지원과 영향을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도 제목

1. 지역 센터의 재정적 필요가 채워져 센터가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2. 현지 체육관을 통해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도록

